

광주공항, 지방공항 중 가장 시끄럽다

연평균 소음도 84웨클로 청주공항과 제일 높아

“공항 주변 환경피해 해결 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공항과 함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공항 인근 7곳의 측정지점 중 우산동과 송대동의 소음이 제일 컸고, 무안공항은 소음 기준치 이하였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항의 연평균 소음도는 84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평가단위)로 청주공항과 함께 지방 14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2015년 88웨클, 2014년 87웨클로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큰 곳이었다. 75웨클이 소음 한도 기준치이며, 공항소음방지법상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대상이다.

지난해 측정결과 광주와 청주공항에 이어 원주공항 83웨클, 대구공항과 군산공항 82웨클로 뒤를 이었다.

공항별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도 광주 공항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공항 측정지점별 소음은 우산동·송대동 89웨클, 본덕동 79웨클, 광주시설관리공단·송정동 78웨클, 덕흥동 77웨클, 마산경로당 76웨클 등 7곳이 소음기준을 넘어섰다.

공항별 소음 기준 초과 지점수는 대구·김포·원주 5곳, 제주·김해·청주·군산 4곳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군용기와 민항기를 함께 운용하는 공항의 소음이 높았다. 민·군 겸용 공항인 광주(84웨클)·청주(84웨클)·원주공항(83웨클)·대구(82웨클)·군산(82웨클)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평균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항공과 철도 등 교통 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소음피해 해결에 소극적이다”며 “공항, 철도 주변 주민의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 23억 원 가량을 투입해 수집하는 항공기·철도소음 측정 자료를 정작 국토교통부에서는 실태파악 및 통계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무안공항 주변의 평균소음도는 68웨클이었고, 대곡경로당·툄머리주유소·내덕경로당 등 3곳의 측정지점의 소음은 65~71웨클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완도 청해진로 경관숲



순천 용오름마을 당산숲

완도 청해진로 경관숲·순천 용오름마을 당산숲 최우수

전남도 마을숲 콘테스트

전남도는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경관숲’과 순천시 주암면 ‘용오름마을 당산숲’이 제2회 마을숲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성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청해진로 경관숲’은 2012년 신완도대교 개통으로 방치된 4000㎡의 국유지를 완도 12개 읍면의 자율방범연합회가 2016년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공모해 조성한 숲이다.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조성 후 숲 관리에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숲이 생태적·경관적으로 우수하다.

완도군의 브랜드 ‘건강한 섬 완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식디자인에 적용해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 기후에 알맞은 난대수종을 선정해 꽃과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오름마을 당산숲’은 약 500년 된 당산나무와 느티나무 숲이 용이 승천했

다는 용당이라는 아름다운 계곡을 품어 안고 있다. 생태적·경관적으로 매우 잘 보존돼 관리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용오름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500년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3월 전부터 치성을 다해 준비한다. 밤새 당산놀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 한 해의 풍년, 소원 성취를 기원하면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성 분야는 진도 군내면 월가장마을 가로숲이, 관리 분야는 신안 장산면 도창리 도창마을 우실숲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분야별로 수상 마을에 상패와 숲 관리비(최우수 300만원·우수상 200만 원)를 각각 지원한다. 전남지역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 숲 279개소와 지난해부터 조성된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참여숲 192개소가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대구를 찾아 대구시의회의 의원들과 ‘광주~대구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광주·대구시의회 협력키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택)는 30일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광주~대구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 반영,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임택 산업건설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굳건한 연대로 힘을 모아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 한시적 제한 조치 필요”

도심 자투리 토지 무분별 고층아파트 전락... 광주시 세미나서 지적

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 상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인 토지 이용, 미관·경관 개선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도심 자투리토지, 외곽 미개발지 등을 고층아파트단지조 조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전, 영산강 등 수변 공간, 무등산 자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대해서는 부문별, 유형별, 특정구역별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만들어 확실적인 경관 연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세미나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전망’에 참석한 노경수 광주대교수, 오세규 전남대

교수, 이상준 동신대교수 등은 하나같이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발표자료 ‘광주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서 제1종 주거지(저층주거지)에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제2종주거지역으로 종을 높여주는 지구단위계획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 7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곳이 1종에서 2종으로 종을 상향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이들 아파트의 층고는 15층 미만에서 20층을 넘어서서 최고 39층까지 고층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 교수는 “광주의 아파트 점유율은 전

국 최고 수준이며, 이미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선만큼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광주전천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광주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개선’에서 노 교수는 “입체적인 경관 관리가 미흡하고 수변경관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심의·계획방안이 모두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주 순환도로별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자료에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50m 이내 종상향 불허기준을 150m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무등산 자락, 구릉, 영산강, 광주천, 대규모 간선도로 인접 구역 등 광주에 맞는 부문별, 유형별, 특정구역별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도, 루마니아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교류 본격화

26~28일 클루지주 방문

협력사업 발굴·추진 논의

전남도가 루마니아 클루지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교류를 본격화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형진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한 기술교류 방문단은 지난 26~28일 루마니아 클루지주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클루지주의 에드리안 보트 국립동위원소·분자기술연구소장을 만나 기술교류 세미나를 열고 양 기관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태양광, 풍력, 마이크로 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술교류회에서는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클루지주는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무 협의를 해왔다.

전남도는 지방정부 연구기관 간 학술 세미나와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남 기업의 클루지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장은 “이번 기술교류 세미나가 지방정부 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내년 가을에는 루마니아 실무 연구진들을 전남으로 초대해 교차방문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클루지주는 면적은 전남의 절반 규모, 인구는 65만9000명으로 농업이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전남도의회도 권옥 부 의장을 단장으로 한 동유럽순방단을 파견, 루마니아 클루지주의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